



인생은 좋은 것? 나쁜 것?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네. 수능시험도 끝났으니 이제 입시생들은 입학원서를 들고 동분서주하겠군요. 내년엔 수험생이 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이 아주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되어야 할거구요. 학생들에게 생활계획표를 잘 짜고 실천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계획표가 촘촘하지 못하고 '어레미' 같으면 생활도 '어레미는'처럼 메마르기 십상이니까요.

신소리 : 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구경꾼들은 신소리를 해대며 웃었다.)<하근찬, 야호>

수명 : 눈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하여 독이나 방축 따위의 밑으로 뚫어 놓은 구멍.

어레미 : 바닥의 구멍이 굽은 체.(구멍이 굽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체까지 이삼십 개는 돼 이 체를 췌바퀴에 달린 고리로 돌글레 이어서...)<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어레미는 : 물이 괴여 있지 못하고 금방 흘러 내려가 버리는 경사진 곳의 논.

희뽀다 :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두 손 털고 나서는 것을 세상 다 아는 마당에 변연히 감지 못할 것을 감을 듯이 희뽀운 소리란 다면...)<염상섭, 무화과>

인명옥(사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모파상 작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대표작 <여자의 일생>은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꿈과 희망에 찬 수도원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결혼에 의한 환멸, 남편의 배반과 죽음, 자식에 대한 실망 등 현실과의 접촉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멸을 맞보는 한 여인의 일생이 노르망디의 고원(高原)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소명(昭明)하게 그려져 있지요.

선량하고 낭만적인 남자 부부의 외딴집 잔느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청순한 몸으로 부모가 정해준 이웃 청년 플라망 라마르와 결혼한다. 남편은 겉보기와는 달리 금전과 정욕에만 관심을 갖는 인간이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꿈꾸던 잔느의 꿈은 깨진다. 신혼여행에서는 육체를 통한 사랑도 있었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진실도 따로 따로 갖게 되었다. 남편이 허녀 로잘리에 손을 대어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잔느는 자기가 낳은 아들 플레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다. 남편은 프르빌 자작 부인과 목장의 이등 마차에서 미회를 즐기다가 프르빌 자작이 마차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죽는다. 그 후에 잔느는 플레에게 모든 애정을 쏟지만, 플레는 방탕아 가 되어 얼룩과 남비를 일삼는다. 급기야는 어느

여자와 도망쳐 버린다. 부친 장례식에서 의식을 잃은 잔느는 땅도 집도 다 팔고 어설픈 새 집으로 옮긴다.

플레에 대한 사랑, 아들을 빼앗은 아들의 정부에 대한 질투에 시달리던 잔느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파리에 갔다가 돌아온지 얼마 안 되어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아들의 정부가 딸을 낳고 죽어가지만 유모를 댈 돈도 없다는 것이었다. 허녀 로잘리가 파리에 가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 여자는 죽고 플레는 내일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손녀를 안고 마차를 탄 늙은 잔느의 몸에 어린것의 열이 스며든다. 그녀는 갑자기 무한한 감동에 사로잡힌다.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 사실적·객관적인 묘사 주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이 작품에는 확실히 즐거리의 진전에 있어서 필연성이나 일관성의 결여 등 몇몇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읽은 뒤에는 깊은 감동은 이것이 여자의 일생을 묘사한 수많은 작품 중에서 결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요. 작가는 다소 심리적인 수법을 원용해 가면서 불행과 비참으로 기울어져 가는 잔느의 생애를 리얼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으며, 읽고 난 뒤에 우리가 통절히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절대

적 고립이라는 것이죠.

말미에 가서 주인공이 오랜 불행과 비참에서 일거에 구제되고 광명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 허녀인 로잘리가 한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군요"라는 말은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답 구실을 하고 있어요. 독자들도 이 대목에 이르러 비로소 이 작품이 주는 침울한 인상에서 해방되고 구제된 듯 한 기분이 들죠. 아마 작가 자신도 이런 결말을 줌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한 것이겠지만요. 인간 관찰가로서의 그의 통찰력 있는 눈이 포착한 인간의 모습은 또 다른 것이었죠. 즉 코르시카 여행에서 잔느가 처음으로 진실한 부부애를 깨닫기 전 작가가 그녀에게 고백시키고 있는 "두 사람의 인간이 영혼까지, 마음 속 깊이까지 완전히 합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도저히 구제될 수 없는 고독한 인간이었죠.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현실이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라는 피치 못할 숙명적 과정을 수놓는 많은 만남들, 외로움과 고독, 이별과 죽음, 배신 등등의 장난극들을 모파상은 특유의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 보이고 있어요. 전혀 철학적이지만 없는 일, 한 여인의 생활을 그려내 보임으로써 그는 인간의 생애 내포된 철학적 문제의 버거움으로 독자를 짓누르고 있네요.

그 청순한 잔느가 힘없는 노파로 그 쇠약을 더 해감에 따라 점점 더 생각이 줄어들고 힘없는 판조만이 남게 됨을 소설을 읽으며 느껴보세요.

인명옥(사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소 e-메일:rolling@paran.com)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저는 외도도 없고 집에 돈도 없어요. 친구들을 보면 다들 저보다 잘난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요. 왜 저 혼자만 이렇게 못한 것일까요?
(ID: 슬픈여자)

친구에게 부처님께서 남긴 경전의 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은 무엇이나 들어 줄 수 있는 '신'이었답니다. 여인이 무엇을 파느냐고 묻자, 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인이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자 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여인이 사고 싶어했던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또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열매로 맺을 사람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보기에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는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자신의 행위 즉, 씨앗에 의해서 행복과 평화, 지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열매 혹은 불행, 어려움, 두려움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금학사 어린이청소년 지도법사 효장 스님

“논술의 자신감! 만능을 띠는 김예코(144세)!”
죽음을 이르는 법
키에크에코트(上)
by. 경유주철

키에크에코트(1818-1855) 크롬 가리드 신종철학의 아버지인 만능이다.
그는 연마로 태생으로 후천인 어머니를 통해 집안의 일급해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에크에코트는 신종철학의 창시자입니다.
20대 중반, 그는 자신의 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후, '만능'이 되어, '죽음'을 주며, '신종철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은 허락했지만 머리가 영속했습니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자!
오! 나는 신에게 버림 받았다.
나는 뭐가?
나쁜 놈!

키에크에코트는 그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된 것입니다.
사물과 인간은 둘 다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만이 실존합니다.
인간은 사물과 존재방식이 다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도 인간에겐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문제(안으로)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키에크에코트는 집단을 강조하는 체계를 정렬하였습니다.

개인은 해결
진리의 부수자!

진리는 존재!
주체성이 진리!

저는 개인의 실존은 고민하지 않고 거창한 역사주의에 빠져있는 애들한테는 반대합니다.
집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합니다.

키에크에코트는 신종철학을 관여한 것입니다. 개인이 주체를 잃고 관종철학에 빠진 후, 연마로 무성론을 만들어 냈는지 우리는 나치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민족
주체성이!

그는 행복을 찾고 싶었고, 삶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적인 노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키에크에코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 알은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佛心

성불화 만트라 출시!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 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끄공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륜상(千輪相)과 만트라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은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한인가격 79,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 만트라(佛心)는 율마니 반매출의 뜻으로 진언(眞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音)으로 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 만트라(佛心) 율마니 반매출 성불화는!
 - 발치기 보장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 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폭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접이식 침대

강한 내구성 · 80° 등받이 각도 · 공간활용 · 쉽고 편한 이동성

라꾸라꾸 접이식 은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시중에서 나와있는 일반적인 접이식침대와는 달리 60 C를 넘나드는 은열기능과 등받이 각도 또한 80°까지 6단계로 조절되는 한자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라꾸라꾸의 명성에 더욱 빛나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

간단하고 편리한 접이식 침대의 대명사!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용으로 최고입니다.

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재제를 사용하였는가를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와 재질을 합금,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간편하게 접어서 이동

할 수 있어 여행이나 낚시 등 야외, 콘도에서도 사용빈도가 높다고 한다. 주문시에는 완전 조립하여 배송하며 평생 AS는 물론 물세탁이 가능한 전용커버를 증정한다. 판매가격은 은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 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 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구입문의 : 080-788-7878
농협 935-12-355423(박정미)

옷가네 토종참옷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것은 알지만 옷값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안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식교점의 좋은아침 - 옷 잘 갖춰야 하는 참옷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시범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옷 안타는 참옷 건강법
- ▶ 2006.8.20 KBS 상생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참옷
- ▶ 2006.10.31 KBS 무한대주 - 참옷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령분들께 큰 효용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선전화 : 080-838-3366

【일반형】 1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고급형】 1박스(150ml x 60포) 2개월분